

S-OIL MAGAZINE
March 2015

Vol. 400

03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사랑의 떡국나누기
CEO 신입사원 간담회

19 포켓 석유상식
세계의 석유매장량

26 두런두런 수다방
지역본부 신년 산행

38 내 마음의 미술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 사랑의 떡국나누기
- CEO 신입사원 간담회
- 윤활기유 해외 고객초청 행사
- 2015 생산직 신입사원

16

소식 모아보기

- 정유영업본부 워크숍
- 이익개선 공로 부서 표창

18 단신

- 사우디 아람코에 대규모 제품판매 계약

통권 제400호

발행일 2015년 3월 2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19
포켓 석유상식

- 세계의 석유매장량

20
햇살나눔

- 햇살나눔 스토리보드
- 햇살나눔 후기 · 단신

26
두런두런 수다방

- 지역본부 신년 산행
- 자녀 동행 일본 여행기
- 제품운영1과 편지 사연
- 해상출하과 야외월례회
- 인도 여행기



30
열정 24시

- Aromatics생산2과 전재춘 사우
- 프로젝트기술부문 한기원 사우

32
No.1 주유소

- 아산 삼성GOOD주유소



34
가족 이야기

- 서로를 볼 때마다 설레는 우리 가족
- 유희2과 이상규 사우 가족

36
애호가의 수첩

- 와인컨설턴트 김건하

38
내 마음의 미술관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40
섬을 걷다

- 화성이 품은 마지막 유인도의
매력에 빠지다
- 화성 국화도-입파도

44
100세 습관

- 앓는 자세 습관

46
나의 롤모델

- 조선의 황금시대를 이끈 위대한 왕
'세종대왕'
- Aromatics생산2과 김효동 사우

48
열린 서재

- <한여름의 방정식> 히가시노 게이코

50
편집공지/독자엽서



뜨끈한 떡국에

사랑의 떡국나누기

우리회사는 세밀 연휴를 앞둔 2월 11일에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급식센터에서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햇살나눔봉사단은 떡국을 비롯해 식료품이 포함된 선물 꾸러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며 나눔의 보람을 더했다.

화끈한 이웃사랑 담았습니다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한층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세밀 쪽방촌에 모처럼 따스한 '노란 조끼'의 물결이 일었다. 우리회사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을 위해 9년째 묵심 있게 지속하고 있는 햇살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떡국나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아침부터 쪽방촌에 모여든 햇살나눔봉사단 100여 명은 이웃에게 전할 설 선물꾸러미 포장으로 분주히 움직였다. 떡국용 떡을 비롯해 쇠고기, 굴, 라면 등 식료품이 포함된 선물 꾸러미는 500여 세대에 전달될 분량으로 차곡차곡 쌓였다. 헌신적인 참여로 순식간에 꾸러미 포장을 마친 봉사단은 곧바로 각 가정에 선물을 배달하기 위해 쟁 걸음을 옮겼다.

한편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전 임원과 함께 쪽방촌 거주 가정을 방문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한 데 이어 떡국 배식에 나섰다. 이날 떡국은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500여 명이 함께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된 가운데 굴과 약과도 함께 배식해 정을 더했다.





떡국 배식을 기다리던 이웃들의 행렬이 차츰 잦아들 때쯤 이웃 가정에 선물 꾸러미 전달을 맡은 햇살나눔봉사단도 막바지 배송에 박차를 가했다. 봉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떡국으로 뒤늦은 점심을 해결한 햇살나눔봉사단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눔의 보람을 마음에 새겼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한국에 온 뒤 해마다 설을 앞두고 이곳을 찾아 명절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임직원의 작은 정성이 이웃 마음에 전달돼 모두가 따뜻한 설을 지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가족의 마음으로

CEO 신입사원 간담회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대졸 신입사원 29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특강방식을 벗어나 최고경영자와 신입사원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돼 신입사원의 창의적 열정을 북돋웠다.

미래를 생각한 시간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신입사원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2월 4일 사택 클럽하우스에서 열렸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가운데 온산공장에서 직무교육(OJT)에 임하고 있는 사원 29명은 마하서 CEO를 맞아 입사 뒤 근황을 전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모처럼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마하서 CEO는 부임 첫 해인 2012년부터 해마다 신입사원 특강과 간담회를 통해 젊은 사원들과 만나면서 매년 개 최해오고 있으며, 가족적이고 친화적인 회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 특강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마하서 CEO는 다과가 마련된 테이블을 돌아보면서 반가움을 전하고, 조직문화와 업무절차 등에 소속히 적응해 각 직무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뒤이어 신입사원의 희망사항과 포부, 자기계발 등을 화두로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최고경영자에게 궁금한 점을 묻는 등 열린 방식으로 간담회가 이어졌다.

마하서 CEO는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사원들을 다시금 축하하면서 “지금은 기본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주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신입사원으로서 기분 좋은 사명감 느낍니다”

박에녹(인력개발팀 부)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계신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신입사원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CEO와 박봉수 수석부사장이 계시는 테이블에 함께 앉았는데, 두 분께서 먼저 가벼운 화두를 꺼내 분위기를 편안히 이끌어주셨습니다.

마하서 CEO는 기념사를 통해서 신입사원과 만난 이 자리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앞서 신입사원들은 마하서 CEO의 간담회 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들었는데, 그럼에도 모임이 성사되도록 한걸음에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CEO께 우리말로, 또 영어로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대화 중에 특히 가족과 음식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상념, 저마다 좋아하는 음식 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CEO의 모습을 보면서 국적과 직급을 떠나 ‘동질감을 가진 가족’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사 말미에 이니셜이 새겨진 펜까지 선물 받았습니니다. 입사 뒤 일련의 과정을 밟으면서 신입사원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빨리 회사에 적응해서 공동의 목표에 헌신하고 매진해야 한다는 기분 좋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세계 고객의 신뢰에

‘고객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탄기유 해외 고객초청 행사

우리 유탄기유 제품에 지속적으로 신뢰의 뜻을 보여준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의 자리가 마련됐다. 시장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물론 상호유대를 한층 각별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유탄기유 최대 수출시장 인도에서 유탄기유 고객 만찬

우리회사가 2월 5일 인도 뭄바이에 있는 타지 랜즈 엔드 호텔(Taj Lands End Hotel)에서 현지 유탄기유 주요 고객을 초청한 가운데 ‘제5회 인도 유탄기유 고객 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탄기유 최대 수출시장인 인도에서 유탄기유 제의 공급처로서 회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객과 장기적 유대관계를 결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인도 현지의 총 14개 업체에서 30여 명의 고객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진행한 우리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맞춰 한복 차림으로 고객을 환대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개별 고객 이름을 새긴 전통문양 명함 케이스와 보석함 등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담긴 선물을 선사했다. 우리나라 전문문화를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윤활기유 공급업체로서 고객 지향의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우리 윤활기유 제품에 변함 없는 애정을 보여준 인도 고객과 한층 깊은 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지난해 윤활기유 신규 증설로 인해 극심해진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과 유가 하락,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우리 윤활기유를 구매해온 인도 고객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공감했다. 류열 수석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도 고객의 지속적인 성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올해 미션으로 'Touching the Hearts of Customers'를 선포하며 더 큰 고객 만족을 향해 차별화한 서비스, 안정적인 공급, 우월한 품질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우리회사는 올해로 10년 이상 사업협력을 지속해온 인도 거래처 4개 업체에 대해 감사패를 전했다.

고객들은 해마다 만찬 행사를 마련해 세심하고 극진한 환대를 지속해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상생의 파트너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후원하겠다는 다짐을 전해왔다.



ICIS 런던 콘퍼런스 열린 영국에서 칵테일 리셉션

2월 18일에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린티아 호텔(Corinthia Hotel London)에서 '칵테일 리셉션(S-OIL Cocktail Reception)'이 열렸다. 우리회사는 2012년부터 4년째 석유화학 국제 정보제공업체 ICIS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윤활기유·윤활유 콘퍼런스 'ICIS London Conference' 기간에 리셉션을 마련해 글로벌 고객과 만나왔다.

올해 행사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전 세계에서 120여 명에 이르는 고객들이 참석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올해는 현악4중주단의 격조 높은 연주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우리 브랜드의 대표 캐릭터인 구도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 셀피 스틱(Selfie Stick) 기념품 등을 마련해 고객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객들은 저마다의 취향을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한 칵테일과 음식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다음 번 행사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알리면서 기존 고객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잠재 고객들과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을 확대한 기회의 장이 됐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이름

우리는 신입사원입니다!

2015 생산직 신입사원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경기도 일산 동양인재개발원에서 2015년 생산직 신입사원의 본사교육이 진행됐다. 힘찬 외침과 뜨거운 가슴 그리고 즐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우리 식구가 된 새 얼굴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미래를 생각했다.

시작, 그 의미 있는 순간

건전한 인성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생산직 신입사원 본사교육은 비전과 전략 및 비즈니스 이해, 조직적응력 제고 및 로열티 함양 그리고 바람직한 직장인 자세 확립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비전, 전략 및 비즈니스 이해 프로그램은 경영방침과 현황을 소개하고 부서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애사심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신입사원들은 신사업 강의와 임원특강 등을 통해 앞으로의 회사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고, 지금의 에쓰-오일을 있게 한 도전정신과 경영이념에 대해 배웠다.

조직 적응력 제고 및 로열티 함양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입사원들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와 체험이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한 다양한 조별활동을 비롯해 토론을 기초로 한 9가지전사전략과제 발표회와 팀 빌딩 등으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만들어갈 내일을 그리며

신입사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본사교육의 하이라이트는 CF 퍼포먼스 발표였다. 교육기간 내내 조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제작영상 발표는 사회생활을 함께할 조직구성원으로서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신입사원들은 인사제규와 복지제도, 회사 관련 시설 견학 등 기본적인 지식들과 비즈니스 매너, 공장예절 등 바람직한 직장인의 자세 확립에 필요한 귀한 양분들을 습득했다.

신입사원들은 교육을 마치고 생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 바이러스로 활약할 예정이다.



더 높이 비상하는 에스-오일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눈빛은 반짝였고, 하늘을 향한 외침은 당당했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청춘의 꿈을 이루리라 자부하는 신입사원들! 각자 각오가 다부지다.

미생 조

1. "내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동기, 선배님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회사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3.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에 활력소가 되는 신입사원의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4.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는 후임이 되겠습니다.
5. 에스-오일의 역동성에 반했습니다. 드디어 함께하게 된 지금의 이 설렘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6. 이 세상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원유처럼 에스-오일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겠습니다.



1 윤현수



2 임동현



3 권오학



4 김효성



5 김상훈



6 박지훈



1 박동수



2 최우성



3 이원중

허니버터 조

1. 진정한 인생의 출발선에 선 기본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동기, 후배가 되도록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2. '대체불가능', '필수불가결' 당연한 듯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기처럼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3. 직장동료가 아닌 친형제라는 마음으로 선배님들과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를 책임지겠습니다.
4. 제 인생에 있어 첫 번째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네요. 에스-오일과 함께 더 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5. 직장인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걸고 에스-오일과 질풍가도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모두 파이팅!
6. 에스-오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청춘의 열정을 쏟아 부으며 자랑스러운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4 정연연



5 김용환



6 신병규

3 조

1. '하고 싶은 일'보다 '가장 힘든 일'을 헤쳐 나가며 현장을 이끄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2. 취업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성공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3. 진정한 글로벌 기업을 향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 에스-오일 밀당(?)의 고수가 되겠습니다.
4.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 에스-오일의 새로운 엔진으로서 패기 넘치는 슈퍼 루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 두 번째, 세 번째... 먼 훗날 맞이할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울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7. 에스-오일 입사의 목표를 이루었으니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1 김승환



2 임진엽



3 김경섭



4 석태희



5 김희수



6 진승오



7 이성범



1 강기태



2 박성원



3 양정우



4 최재욱



5 이진호



6 김태관



7 김동환



8 정중환

후 레 시 맨 조

1. Impossible? = I'm possible! 불가능을 모르는 에스-오일 정신으로 최고보다 최선을, 최선을 향해!
2. 자세는 낮게, 목표는 높게! 스펀지같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생활하겠습니다.
3. 열심히 하는 건 기본!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제일 잘 하는 직장의 신(神)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4. 오랜 시간의 인내 끝에 맞본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학창시절 꿈이었던 에스-오일에 입사하게 되었네요. 선배님 말씀 귀담아 듣는 열정맨이 되겠습니다.
6. 내가 에스-오일 사원이 되다니! 긍정의 에너지로 현장의 마찰을 없애는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7. 저를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을 담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크고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8. 선배에게 인정받는 후임, 동기에게 사랑받는 동료, 그리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소식 모아보기

팀/과, 부/부문 단위의 이모저모를 정리합니다

우수사례 공유로 중장기 목표 달성 한마음 정유영업본부 워크숍



정유영업본부 워크숍이 2월 13~14일 스탠포드 호텔 서울(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정유영업본부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각 부문 주요사안 추진방안을 살피는 한편 최우수 지사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워크숍에는 류열 수석부사장과 신동열 정유영업본부장을 비롯해 각 부문장, 팀리더, 지역본부장, 지사장, 파트리더 등과 국내영업유관 부문 담당임원, 팀리더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동열 부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영업환경에도 전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치하하면서 올해도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류열 수석부사장은 최우수 지사 성공사례 발표를 참관한 뒤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성과를 거둔 최우수 지사들의 성공사례 발표 세션과 마케팅 전문가 초청 강의 세션은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케팅 방안 실행을 통해 성과를 달성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올해 목표 달성에 관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질문과 열띤 논의로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상당수 도출해내면서 이번 워크숍이 향후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 박성진(영업전략팀)



이익개선, 적극적인 참여로 빛나는 성과

이익개선 공로 부서 포상



운영총괄이 이익개선 활동에 대한 임직원 참여의식 고취와 회사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이익개선 포상을 마련하고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월 26일 진행된 시상에서 지난해 이익개선 활동에 준해 총 10개 과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운영총괄은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증대, 에너지절감 등 총 123개 항목에서 수율 개선효과 포함한 3천580억 원의 이익개선을 실현했습니다.

글 황인재(이익개선팀)

티타임이 즐거워지는 로비

본사 로비 사내커피숍 설치

좋은 품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사내커피숍이 본사 사옥 로비에 설치됐습니다. 3월 2일 문을 연 사내커피숍은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등 커피와 티, 생과일주스 등을 판매하며, 사원증 제시를 통해 시중보다 2~3천 원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글 김태현(총무팀)



남선석유(주) 계열사 소식

정직한 영유아 전용 식재료 제품 판매

우리 계열주유소 120여 개소를 거느린 자영대리점 남선석유(주)가 영유아를 둔 직원 가족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선석유의 계열사에서 '팜투베이비'라는 브랜드로 이유식과 유아식, 이유식 전용 식재료 등 정직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남선석유는 1989년에 우리회사와 연을 맺은 이래로 호남지역 판매망 구축과 함께 상생의 동반성장을 이어나온 거래처입니다.

글 한정욱(대리점영업팀)



S-OIL NEWS

사우디 아람코에 대규모 제품판매 계약

우리회사가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ATC(Saudi Aramco Products Trading Company)에 경유와 납사 1조 2천억 원 상당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ATC에 경유와 경질 납사(light naphtha)를 각각 최대 1천400만 배럴씩 총 2천800만 배럴을 판매하고, ATC로부터 파라자일렌 12만 톤과 중질납사(heavy naphtha) 200만 배럴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회사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의 계열사를 통해 생산 제품의 안정적인 해외 판매처를 확보하고 필요한 제품과 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공정운전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원동정

퇴임 및 Contract Staff 임명

- 3.1 홍용표 상무(구매 Specialist)→Contract Staff(구매 Specialist)

인사동정

보직변경

- 2.9 홍상우(2급, LPG팀 중부LPG판매파트리더)→대리점영업팀 부(한라석유 파견) 및 제주저유소장 겸직 **곽재호**(2급, 대리점영업팀 부-한라석유 파견 및 제주저유소장 겸직)→대리점영업팀 노현대(2급, 대리점영업팀)→LPG팀 중부LPG판매파트리더

- 3.2 신종철(1급, 기획분석팀리더)→Special Assignment(STLC 파견) **김영배**(2급, 업무부장 대행)→기획분석팀리더(대행) **이동운**(1급, 대외업무팀리더)→업무부장 **류진열**(2급, 업무부 총무과장)→대외업무팀리더(대행) **임태순**(2급, 세무팀)→회계팀 **이재규**(2급, 회계팀)→세무팀 **신기환**(3급, 울산지사 판매담당)→진주시사 판매담당 **남건우**(4급, 환경팀) **김진수**(일반사무직2급, 광고팀)→업무팀 **오영주**(4급, 석유화학제품팀)→석유화학운영팀 **변지은**(일반사무직3급, 업무팀)→환경팀 **김가희**(일반사무직3급, 환경팀)→광고팀 **김영우**(4급, 대외업무팀)→기획분석팀 **윤원섭**(4급, 기획분석팀)→대외업무팀 **최철호**(5급, 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생산조정팀 **박용**(5급, 인사후생부 후생과)→인사후생부 인사과 **김영덕**(5급, 설비관리계획팀)→기계부 예방정비과 **최기원**(5급, 업무부 경리과)→인사후생부 후생과 **우소원**(5급, 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기술교육팀

대졸 신입사원 부서배치

- 3.2 이은규→설비관리계획팀 **강태원** **박예녹**→기계부 예방정비과 **이병승**→계전부 예방정비과 **신동진**→정처부 정치과 **이길용**→공무부 설계과 **이석진**→공무부 설계과 **김태균**→공무부 설계과 **윤정호**→검사부 검사2과 **전영준**→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성준모**→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 **서준호**→분해공정부 RHDS공정과 **문승현**→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김도형** **박관우** **심동규**→석유화학공정팀 **김병훈**→생산최적화팀 **최승범**→생산조정팀 **강찬우**→에너지관리팀 **박찬수**→이익개선팀 **김동한**→안전관리팀 **신정현**→업무부 경리과 **이은지**→판매계획/분석팀 **한제백**→대리점영업팀 **안철희**→저유관리팀 **임수일**→석유화학제품팀 **이원일**→유통기술팀 **조한길**→환경팀 **박시연**→회계팀 **이태우**→경영개선팀 **신소영** **이이슬**→TSC개발팀 **김형진**→RUC추진2팀 **조성민** **김병기**→프로젝트구매부 **김희수**→수급운영팀 **김수현** **윤도현** **박원민**→소매관리팀 부

정년퇴직

- 2.28 이태량(2급, 인천저유소) 서세홍(3급, 강남지사) **권중현**(3급, 직영주유소관리팀)

퇴직

- 2.5 최우혁(5급, RUC추진1팀)
2.6 조은숙(3급, TSC개발팀)
2.16 한민수(3급, 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장) **손동진**(4급, 정치부 정치1과)
2.28 **김호영**(4급, 프로젝트기술부문) **장성용**(4급, 진주시사) **이승우**(5급, 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
3.2 **우현욱**(RUC추진팀)
3.3 **금교순**(기계부 예방정비1과)
3.5 **안문기**(공무부 설계과)

부음

- 2.4 **최동호**(부산지사) **빙모**
2.5 **박형근**(상기물지사) **조부**
2.15 **오도희**(동력3과) **모친** **서효원**(상해지사) **빙부**
2.16 **허충**(설비관리계획팀) **빙부**
2.24 **송준용**(서부영업지원팀) **부친**
2.26 **손영성**(제품운영과) **부친**
2.28 **박철임**(수소과) **빙부**

결혼

- 3.7 **지상현**(유황1과) **김진혁**(석유화학공정팀)
3.8 **김성부**(촉매연구팀)
3.14 **최상배**(Aromatics생산2과) **이경희**(안전과) **이들** **조보람**(설계3과)
3.15 **하영동**(Aromatics생산2과) **박성진**(영업전략팀)

세계의 석유매장량

해마다 새로 확인되는 석유량이 있어 총 석유매장량은 늘 증가하는 듯 보이고 무한정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새롭게 드러나는 매장량도 줄어드는 추세라 이에 대해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장된 석유의 양’을 매장량이라고 하지 않는다

세계의 석유매장량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흔히 ‘석유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매장량’은 지하에 매장된 양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석유를 파보지 않고서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어내고 정말로 석유가 있는 게 확실한가, 퍼 올릴 수 있는 석유의 양과 그 비용은 얼마인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장량을 추정할 것을 자원량(resources)이라 한다. 경제성이 있어 추출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매장량(reserves)이라 표현할 수 있다. 매장량도 확실성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확실성이 높은 순서대로 확인매장량(Proved Reserves, P1), 추정매장량(Probable Reserves, P2), 가능매장량(Possible Reserves, P3)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자원량이 무궁무진하더라도 매장량은 0일 수 있다. 가령 2013년 초 호주에서 세계 2위 수준의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이는 ‘매장량’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석유매장량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50% 이상 중동에

전 세계 석유 총 매장량은 약 1조 5천300억 배럴(미국 CIA 2013년 기준, 미국에너지정보청(EIA) 2014년 기준으로는 1조 6천459억 배럴)이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5%인 2천670억 배럴을 보유해 1위에 올라서 있다. 뒤이어 2위는 베네수엘라로 2천112억 배럴, 3위는 캐나다 1천736억 배럴, 4위 이란 1천512억 배럴, 5위 이라크 1천431억 배럴 등이다.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95%가 상위 20개국, 약 85%가 상위 10개국에 집중돼 있으며 50% 이상이 중동 국가에 밀집해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매장량으로 매년 300억 배럴을 생산·소비한다고 가정하면 가채년수는 약 55년이다.



‘포켓 석유상식’은 김재경 박사의 도움으로 연간 게재됩니다.

김재경 박사는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에서 해외 석유시장과 국내 석유산업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한 행복만찬

임원 떡국 배식 봉사

2월 13일 울산중구노인복지관에서 'S-OIL과 함께하는 설맞이 나눔행사'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박봉수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운영총괄 임원 13명 전원이 참여해 울산 중구 어르신 400여 명에게 떡국과 갈비찜 등을 배식하고, 식용유, 튀김가루, 키친타올 등 설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우리회사는 해마다 떡국 배식 등 임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해 사회공헌 선도기업으로서 지역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울산중구노인복지관에 모인 온산공장 임원 전원은 본격적인 나눔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갖고 이날의 활동내용과 주의사항을 숙지했다.



담당 배정과 배식요령 시범

밥과 반찬을 배식할 담당자를 정한 뒤에는 배식요령에 대해 배웠다. 영양사의 시범에 임원 모두 진지하게 집중했다.

조리실 준비도 척척

배식창구 안에서도 분주한 손놀림이 한창이다. 조리실을 맡게 된 임원들은 그릇을 씻고 배식창구에 나갈 음식을 담으며 정성을 쏟았다.



본격 배식

배식 전 긴장도 잠시, 11시 35분이 지나자 기다리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식당에 들어섰다. 금세 익숙해진 모습으로 임원들은 배식에 임했다.



가득 찬 식당과 잠깐의 휴식
식당은 어르신으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1차 배식을 마치고 잠깐 휴식시간이 생겼는데도 이어지는 배식을 위해 임원들은 음식을 점검했다.

설 선물 준비 끝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께 드릴 설 선물을 미리 준비해 뒀다. 선물세트 상자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 카놀라유, 위생장갑 등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다.



기념사진 촬영
떡국 배식과 설 선물 전달을 마치고 보람찬 미소를 짓는 임직원들이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임원들은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Aromatics생산2부 장애인 동행 요리교실 체험

글 하해운(Aromatics생산2부)

2015년 1월 13일은 봉사하기에 참 좋은 화창한 날씨였다. 출발하기 전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참사랑의 집으로 출발했다. 역시나 아이들은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오늘의 과제는 '화전 만들기'라 그런지 여자아이들로만 구성되었는데, 내 짝이 된 아이는 외출이 기쁜지 연신 노래를 부르고 나에게 장난을 걸어온다. 처음 봉사를 시작하던 3년 전에는 아이들이 다가오면 어색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면서 이젠 큰딸의 어리광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우리는 요리선생님의 설명과 시범을 보고 곧 화전 만들기에 들어갔다. 찹쌀반죽을 새알모양으로 만들어 약한 불에 작은 호떡모양으로 굽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대추, 해바라기씨앗, 진달래꽃, 허브 잎 등을 올린다. 노릇하게 구운 뒤에는 설탕시럽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서툰 솜씨를 뽐내며 각자 다른 모양의 화전을 하나 둘씩 만들어냈다. 화전을 굽자마자 호호 불어가며 먹는 아이, 불이 무서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아이, 찹쌀반죽으로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 등 참여하는 모습은 모두 제각각 달랐지만 우리 요리활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

몸이 조금은 불편한 이들도 작은 손길을 내밀고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느낀 보람찬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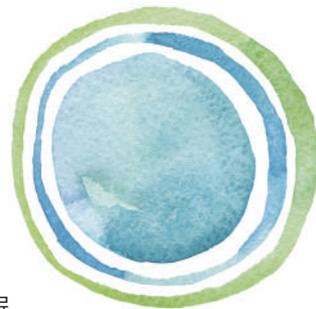




울산복지재단 설맞이 이웃돕기 쌀 지원

울산복지재단이 설맞이 이웃돕기 일환으로 백미 2천여 포(9천922만 원 상당)를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2월 4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용연 전무와 김기현 울산시장, 김상만 울산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 백미는 보훈 및 저소득 가정 2천여 세대에 전달됐다. 우리회사는 2007년부터 해마다 큰 명절인 설과 추석, 가정의 달 5월 등에 이웃돕기 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까지 총 58억 8천2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글 이수연(대외업무팀)



가야금 오케스트라 '숙명가야금연주단'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공연

우리나라 최초의 가야금 오케스트라 '숙명가야금연주단'이 2월 26일 문화예술&나눔캠페인 무료 공연 무대를 찾았다. 이날 객석에는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 티켓을 받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티켓을 통해 폭넓은 연령대의 관객이 들어찼다. 숙명가야금연주단은 1999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생으로 창단된 오케스트라로서, 지금까지 8집의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이어왔다. 해금, 판소리 등 국악은 물론 비보이,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접목을 시도하고 2009년 KBS 국악대상, 2010년 대한민국 한류대상을 수상하는 등 역량을 널리 펼치고 있다.

글 원유진(운영지원팀)



두런두런 수다방

사우들의 일상과 행복이 담긴
사연을 소개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정상으로 전진!

지역본부 신년 산행

글 이동구(동부영업지원팀) · 채만기(서부영업지원팀)

동부지역본부 산악회 신년 산행

2015년 2월 7일, 올미년 양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며 동부산악회 회원들이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비슬산'으로 신년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슬산은 산꼭대기의 바위모양이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비파 비(琵琶)', '거문고 슬(瑟)' 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높이 1천84m의 비슬산은 봄철에는 철쭉과 진달래, 여름에는 야영지, 가을에는 억새 및 겨울에는 얼음 축제로 유명해 사시사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산행명소입니다.

동부산악회 회원들은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많은 괴암들과 멋진 풍경을 보며 산행에 나섰습니다.

목적지인 대견사에 도착해서는 "2015년에도 목표를 달성하며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동부지역본부가 되기"를 다짐하며 각 지역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나눠 먹고,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산한 뒤에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친목도모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 모두가 즐거운 산행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힘차게 산에 오르듯

동료들을 밀고

올해도

힘내겠습니다





서부지역본부 산악회 신년 산행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새해의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정기를 받기 위해 서부산악회 전 회원들이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계룡산으로 신년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새해의 희망찬 내일을 암시하듯 산행 당일의 날씨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서부산악회 전 회원은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에 집결해 '2015년 서부지역본부 날자!'라는 구호를 다같이 외치고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 무색할 만큼 맑고 따스한 날씨에 기분이 좋아진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다른 회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서는 서로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음식들을 함께 나눠먹으며 땀을 식히고 노곤한 두 다리를 달랬습니다.

산 중턱에서 목적지인 남매탑까지 이르는 산길은 매우 거칠고 가파른 길의 연속이었지만 회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며, 앞에 있는 사람은 끌어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밀어주며 무사히 남매탑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스님과 처녀가 남매의 연을 맺고 수도에 정진해 서방정토로 떠났다는 전설이 있는 남매탑 아래에서 우리는 "용맹 정진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노라"고 파이팅을 외치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꿈 찾아 떠난 이웃나라 견문록

자녀 동행 일본 여행기

글 전균호(해상출하과)

제 아들 상욱이는 울산애니원고등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일본의 로의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기에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 동경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들은 자유여행을 고집했습니다. 해외 자유여행이 처음인데다 말과 글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선뜻 떠나기 두려웠지만 목적 없는 패키지여행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는 아들의 말에 '까짓 거 가보고 싶은 곳에 마음껏 찾아 가보자' 하고 일본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학원에 다니는 탓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갑자기 여행을 준비하게 돼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예약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지브리미술관 예약이 이미 마감되었던 거죠. 대신 도쿄도 교토시, 이케부쿠로, 신주쿠, 아키하바라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리타공항에 내려 인터넷에서 검색해둔 방법으로 지하철을 타고 아주 쉽게 호텔에 도착했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우리는 바로 도쿄도시리로 향했습니다. 도쿄도시리에서는 청룡열차를 탔는데 처음 청룡열차를 타는 아들과 마음껏 소리치며 즐겼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이케부쿠로 포켓몬센터에 들러 평소에 관심 있었던 캐릭터들을 쇼핑했고, 오후에는 신주쿠 일대를 둘러본 뒤 도쿄도청 전망대에 올라 시내 전경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아키하바라에 가서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 캐릭터, 하비숍 등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에 여행계획에 없던 도쿄스카이트리 전망대에 올라 동경의 야경을 감상하며 여행을 마쳤죠.

서툰 준비로 걱정은 많았지만 아들과 의논하고 맞춰가며 다녀온 여행이라 즐거움은 더욱 컸습니다. 지하철 표를 못 끊어 오락가락하고, 환승하는 곳을 못 찾아 헤매고, 골목길을 돌기를 몇 차례, 다리와 허리는 아파도 아들의 꿈을 찾아 함께한 여정이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들아! 꿈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가야 하는 거야. 그 꿈이 무엇이든, 또 어떻게 바뀌든, 때로는 꿈을 향한 길이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라도 엄마와 아빠는 널 계속 응원하마. 사기, 파이팅!”

(‘사기’는 아들의 애칭입니다)

꿈을 향한 아들의 길

엄마와 아빠가
언제나 함께할게



한결같은
동료의 정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온기를 남기고 부서 이동한 정겨운 동료

제품운영1과 편지 사연

글 노재규(제품운영1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사우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입사해 우리 부서로 배치 받아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최률호 사우가 그 주인공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하나 익숙하지 않아 보였지만 어느덧 업무를 척척 처리하고 손발이 맞아가고 있던 터라 부서원 모두가 아쉬워했지요. 새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최률호 사우가 생각지 않았던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부서원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까. 회식에 참석한 사우 모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아주 안 보는 건 아니라고 애써 생각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정성스레 쓴 편지를 받고 보니 더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친 공장업무 가운데도 사람의 정은 피어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메일이 익숙한데 그와는 다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새로 발령받은 곳에서도 우리와 지낼 때처럼 지내준다면 반드시 업무를 잘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눈 덮인 한라산이 팀워크로 후끈!

해상출하과 야외월레회

글 강철중(해상출하과)

해상출하과 교대 C조원들이 단합대회 겸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재로 야외월레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한라산 백록담 정상 등반에 도전해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출발일은 2월 3일. 출발 며칠 전부터 조원들은 겨울 등반을 위한 아이젠과 스파츠, 스틱, 등산복을 챙기느라 분주해보였습니다. 고참 사우부터 신참 사우까지 나이불문, 어린애처럼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우리는 아침근무를 마치고 미리 준비한 등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김해공항으로 가 제주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주공항에 오후 6시 반경 도착하니 이미 날은 저물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울산의 추운 날씨와 완전히 달라 봄날같이 포근하게 느껴져서 마치 동남아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이국적인 향기를 풍겼습니다.

첫날 저녁은 월레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제주에서 제법 입소문이 난 제주흑돼지고기 전문집에 도착하자마자 총무님께서 월레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간략한 회의를 마치고 담백한 흑돼지고기와 소주 한 잔으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단합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들만의 여행이었던 지라 단합이 조금 과해 숙소에 도착하자 음향기기도 없이 노래자랑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새벽 3시에야 자리를 접을 수 있었는데 정신력만큼은 대단해서 아침 6시 제시간에 모두 일어나 한라산 등반을 준비하더군요. 역시 에쓰-오일맨의 정신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정확하게 계획대로 아침 8시에 성판악 코스 등





산로 입구에서 13명 전원이 대열을 갖췄습니다.

우리는 설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한라산의 비경을 가슴에 담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전날의 숙취로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라산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주변의 나뭇가지에 맺힌 눈꽃에 감탄과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눈꽃을 본 시간이 이날의 백미였습니다. 그 뒤로는 눈이 평평 내려 눈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3시간 30여 분만에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해 준비한 김밥과 컵라면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컵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식사 뒤에는 정상 도전조와 하산조로 나뉘었습니다. 역시 정신력만으로 정상에 도전할 수는 없더군요. 5명은 하산조, 8명은 정상도전조였는데 하산조에 50대가 없었다는 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명언이 검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이스로 구성된 8명의 선발대는 칼바람과

눈보라를 온몸으로 이겨내며 1천950m 백록담 정상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눈이 많이 쌓여있고 평평 내리는 눈이 시야를 가렸지만 동료애로 뭉친 남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50cm 정도 쌓인 눈을 밟을 때의 촉감과 뽀드득거리는 소리에 더없이 상쾌하고 신났습니다.

왕복 8시간의 등반을 마치고 우리는 더없이 설산을 즐기고 왔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한라산의 설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떠나세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뽀드득 뽀드득

쌓인 눈을

경쾌하게

밟아나가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섰습니다



마음 풍요로운 순수의 땅

인도 여행기

글 · 사진 김준목(품질보증팀)



인간 붓다의 발자취를 따라서

휴양과 관광 외에 색다른 여행을 경험해보고 싶던 차에 친한 지인분이 인도 성지순례 여행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침 저는 예전부터 불교의 탄생지이자 힌두문화의 꽃을 피운 인도에 가보고 싶었던 터라 곧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여행은 인도 성지 답사코스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인도의 10대 성지를 모두 둘러보는 15박16일의 일정이었습니다. 10대 성지는 싯다르타가 탄생한 룸비니, 성도 보드가야, 최초로 설법한 사트나트, 붓다가 열반에 든 쿠시나그리의 4대 성지를 포함해 죽림정사 라즈기르, 천불화현 쉬라바스티, 원숭이가 꿀을 공양한 바이살리,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3개월 간 설법한 상카시아, 싯다르타가 젊은

시절 29년간 성장한 카필라성 카필라바스투, 깨달음을 이루기 전 6년 간 고행했던 산 전정 각산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다

콜카타에 도착하자 저를 반기는 건 심각한 매연이었습니다. 한국의 공단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했지요.

바라나시로 가기 위해 하우라역에 가니 수많은 짐꾼과 승객으로 피난행렬을 방불케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기차도 이보다 '판타스틱'할 수는 없을 것 같더군요.

3일차부터가 본격적인 성지순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갠지스 강까지 가는 15분 거리를 리샤를 타고 갔습니다. 리샤 체험을 통해 인도의 실상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갠지스 강은 인도 북부를 흐르는 전체 길이 2천 506km에 이르는 성스러운 강인데 한쪽에서는 장례로 화장할 한 재를 강에 흘려보내고 또 다른 한쪽에선 '목욕을 하면 모든 업이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씻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번 여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 스타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밥을 사먹는 대신 직접 밥을 지어야 했고 하루 끼니는 평균 두 끼였습니다.



인도여행에서

얻은 교훈

마음먹기 따라

사람은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집니다



3일을 제외하고는 현지 사찰이나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와는 차원이 다른 열악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 음식은 처음에는 꺼림칙해 먹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먹을수록 맛있었습니다. '난'은 어릴 적 아버지께서 아궁이에 구워 준 밀떡이랑 똑같았고 특히 고기, 야채, 향신료를 넣어 튀긴 만두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정각산에 갔을 땐 동네 꼬마들이 어른도 오르기 힘든 바위산을 슬리퍼를 신고, 또는 맨 발로 평지를 건듯 쫓아오는 모습에 할 말을 잊게 되더군요. 보드가야 대탐까지 가는 8km 길에서는 네이란자라 강 건너 펼쳐진 풍광이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보드가야 대탐을 보고는 두 번 놀랐습니다. 규모에서 한 번,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또 한 번! 성지를 방문하는 자들은 피부 색깔이 달라도 모두가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인 인도 사람들

6일차에는 비하르 주 등게스와의 불가촉천

민 마을을 찾아 가서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절 보았는데, 나 또한 어린 시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상기고 편한 마음으로 대하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천진한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곧장 따라 하며 웃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해 보였지만 마음은 나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명불허전 죽림정사를 지나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바이살리로 가서 진신사리탑과 부처님의 발우 속에 원숭이들이 꿀을 채워 공양했다는 원후봉밀터. 강을 건너신 부처님께서 띄워 보낸 발우를 기념하여 만든 세계 최대의 케사리아 탑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9일차에는 네팔 국경을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일정 대부분을 '힌두스탄 평원' 지대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림과 같은 장관이 끝없이 펼쳐지더군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셨다는 '카쿠타 강'에서 강물을 마셔 보니 '더럽고 깨끗함은 다 내 생각이 짓는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당을 참배하

면서는 그리 신심 있는 불자도 아니지만 왠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네팔은 해발 2천m의 고지대이만 그리 춥지 않았어요. 산 너머로 '안나푸르나'와 히말라야 고봉들을 보면서 잠시 눈을 놓았습니다. 먼 벌판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 들리고 심신이 평온함을 느꼈던 곳 '탄센'에서 정말 몇 달간 살고 싶더라고요.

인도로 넘어와서는 마지막 진신사리탑 '삐삐라하와'를 친견했습니다. 이후 기원정사라고 부르는 제다바나에 들르고, 부처님께서 앉으셨다는 간다쿠티에 앉아보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인도의 길을 달려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서 장시간 그런 기분이면 머리가 이상해지거나 깨닫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행을 마치며

여행 내내 직업은 못 속인다고 주유소가 눈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인디안 오일' 간판이 많이 보였습니다.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그들과 함께한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수백 배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도 웃음 짓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보다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박16일간의 긴 여행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싶고, 특히 같이 근무하는 품질보증팀 가족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정 24시

열정으로 회사의 앞날을 밝히는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동료에게 다정한 직장생활이 정답입니다

Aromatics생산2과 전재춘 사우

입사 25년차, 온산공장과 함께 걸어온 길

1990년에 3월 19일에 입사했으니 곧 만 25년을 딱 채우네요. 날짜까지 기억하는 건 그만큼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100여 명이 입사했는데 지금까지도 90% 이상 재직 중입니다. 동기들 모임을 '하나로회'라고 하는데 지금 공장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Aromatics생산과 초기 가동의 일원으로 투입됐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제 목표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SEP)의 2011년 초기 가동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터파기부터 시작해 저와 동기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저는 요즘 25년의 현장업무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까지 10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 제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기술보다는 다른 걸 더 전하고 싶어요. 인성을 갖추고 동료들 인간적으로 대하라는 부분이지요. 제가 선배들로부터 받은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인성을 갖추면 뭐든 된다"는 점입니다.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 인사를 건네면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고 관심을 두게 되죠. 다들 업무에 바쁘겠지만 그런 점이 동료애로 발전한다는 걸 후배들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 만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한다면 저는 기쁘게 반길 겁니다. 한 가지 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복잡하게 따지는 건 도전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전에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려운 일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공장 업무에 있어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 모두 각별히 관심을 쏟아 아 늘 건설하고 무탈한 나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 CEO표창
- 조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고 있으며 공정 운전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 참여, 책임감 느낍니다

2008년 1월에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설계과와 프로젝트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했고 작년부터 프로젝트기술부문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속 만 7년 만에 올해 CEO 표창을 수상했는데 정말 큰 영광이지요. 하지만 제가 특별히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그중 하나였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미래를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사적인 선제 투자로, 정유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겨내는 돌파구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기술과 공정으로 업무가 나뉘는데 저는 기술 부서에서 공장을 짓는 업무에 투입돼 있습니다. 책임감과 더불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동료와 함께하기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입사했을 때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회사에 도움이 될까?' 저는 '주어진 업무에 열정을 다하자고' 답을 내렸고 지금도 그 결심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크게 봤을 때 조직의 구성원은 병렬전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각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조직은 강하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외의 기술부서원들과 프로젝트의 또 다른 축인 공정부서 동료들도 애쓰고 있지요. 요즘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전사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동료들의 응원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시점은 2017년입니다. 올해의 간절한 목표는 계획했던 만큼 프로젝트를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동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동료들을 믿습니다

프로젝트기술부문 한기원 사우

• CEO표창

• RUC 프로젝트에서 '리모트 렉 룸'을 제안해 케이블 설치구간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

기분 좋은 마음을 파는 주유소

아산 삼성GOOD주유소

24시간 셀프주유, 승용차용 소형세차기와 대형차용 대형세차기, 주차가 가능한 공간까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걸 갖추고 있으면서도 적정 진짜 파는 건 '기분 좋은 마음'이라고 강조하는 주유소가 있다. 아산 삼성GOOD주유소다.

최적의 입지조건, 가장 신경 쓰는 서비스는 '사람의 마음'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11대째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예전부터 워낙 지역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013년 6월에 개업해 운영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삼성GOOD주유소지만, 윤태균 대표는 각별한 자부심이 있다. 그동안 탕정면 향토지 편찬위원장, 탕정면 축제위원장, 희망복지추진단장 등 굵직한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이다.

삼성GOOD주유소의 개업 역시 그렇다. 15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아산탕정디스플레이 시티가 입지하고 있는데도 인근에 주유소가 없다는 건 지역사회에 서비스할 거리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말과 같았다. 윤 대표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유소 운영에 도전했다.

"예전에는 주유소 시공 등 건축업을 했지요. 이곳 주위에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동 차량도 많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하려 멀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 주유소 입지로는 최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산업단지를 오가는 버스가 자주 이용한다. 또 대형차와 소형차가 모두 이용하다 보니 다양한 서비스 역시 당연하다. 넓은 공간에 대형세차기와 소형세차기 모두를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와도 세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벌세차와 왁스세차 덕분에 세차서비스가 인기 폭발이지만 더 중요한 인기 비결은 따로 있다.

"가장 신경 쓰는 서비스요? 물질보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유소를 이용하고 나면 왠지 좋아지는 기분을 느낀다는 고객의 말이 가장 듣기 좋죠. 직원들이 고객의 마음을 위해 서비스한다면 저는 직원들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서비스하죠. 사람 사이에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가면 제품은 저절로 팔린다는 게 윤 대표의 운영철학이다.

미니 인터뷰



좋은 기름! 착한 가격! 참 좋은 주유소! 삼성GOOD주유소!

윤태균 대표는 주유소의 운영방침을 '좋은 기름! 착한 가격! 참 좋은 주유소! 삼성GOOD 주유소!'라 정의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저희 주유소의 합리적인 가격은 인근에 잘 알려졌습니다. 세차시설은 이미 최고급 시설로 갖추었고요. 그래도 아쉬운 건 대형차량의 주차 공간과 고객의 휴식 공간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하고 싶다. 마음을 끄는 친절도 물질적인 뒷받침으로 배가된다는 걸 윤 대표는 아주 잘 알고 있다.

모든 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점이다. 주유하지 않는 방문 차량, 심지어는 주유소 부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니 그 마음씀씀이에 감동하지 않을 아웃이 없다.

"아직도 지역주민을 위해 할 게 많습니다. 이장협의회회장 등 지역사회의 7~8개 기관 단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삼성GOOD주유소의 또 다른 목표는 아산지사 관할주유소 가운데 판매 면에서 으뜸이 되는 주유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으뜸'의 모범을 보여 다른 주유소가 운영함에 있어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

삼성GOOD주유소는? 2013년 6월에 개업해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신생주유소입니다. 주변에 삼성을 포함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유동차량이 많아 주유소 입지로는 최적인 곳에 위치합니다. 승용차와 대형차 모두가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목표와 포부는? 모든 고객분께서 삼성GOOD주유소 하면 '기분 좋은 마음을 파는 주유소'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아산지사 관할 주유소 중에서 판매량이 으뜸인 주유소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주유소 운영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GOOD주유소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인근에 위치해 있다. 탕정면사무소에서 아산시내 방면 624번 지방도를 이용하다가 탕정우체국 삼거리로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셀프주유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직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총 7명이 근무하는 가운데 '기분이 좋아지는 주유소'를 지향한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85 (옹두리 436-2)
041546-1300



가족 이야기

사우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서로를 볼 때마다 설레는 우리 가족

유황2과 이상규 사우 가족

이상규 사우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무렵 가족사진을 찍은 뒤 가족사진을 찍지 못했던 게 못내 아쉬웠다. 아들의 중학교 졸업을 맞아 가족사진을 찍고 싶었던 이상규 사우는 식사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겸 가족사진을 남기고자 사보 참여를 결심했다.



- 지난 17년간 함께 동행하며 산 것에 감사해요.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며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날들 역시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가 되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특 하면 부모님께 반항하듯 행동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딸이 부모님께

“가족에게 편지 쓰세요? 연애편지 쓰는 기분이에요”

열게 훑날리는 겨울비를 뚫고 이상규 사우의 네 식구가 식당에 들어선다. 많이 춥지는 않지만 날이 껏었는데도 네 식구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며칠 전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마침 잘 됐죠.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이상규 사우는 친척과 가족과 같이 지낸다. 누군가 입학·졸업하거나 경조사가 생기면 제 일처럼 여기고 달려간다. 아들 이신원 군의 졸업식 때도 온 친척이 다 참석해 가족행사로 치렀다. 그래서 이 식사가 네 식구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아내 이수정 씨는 말한다.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딸 이신아 양은 ‘중2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밝고 차분하다. 스스로를 애늬은이라고 밝힌 신아 양은 피자를 덜어내지 못해 시간을 끄는 아빠와 오빠에게 한 마디를 던져 모두를 웃게 했다. “장정 둘이 붙어서야 피자가 떼어지네!”

이상규 사우는 가족사진 촬영 욕심이 앞섰다고 속내를 밝히면서도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 바로 편지 쓰기다.

“연애할 때 쓴 이후로 써본 적이 없는데, 은근히 설레네요.”

성숙한 우리 아이들과 여행하며 살고 싶어요

“여행을 좋아해요. 애들 아빠는 쉬는 날에 집에 붙어있지를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는 애들을 자는 그대로 이불에 둘둘 말아서 그대로 차에 태우고 훌쩍 떠났어요.”

아내 이수정 씨는 쉬는 날 집에서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남편이 제안하는 여행 역시 즐겁다. 가족이 모두 함께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라카이와 남이섬에 다녀왔는데 보라카이에는 꼭 다시 가보고 싶다고 가족 모두 입을 모아 밝혔다.

“아이들이 성숙한 편이에요. 딸이 예절수업 이후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사우의 가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는 일이 없다. 대식가인데 장염에 걸려 많이 먹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아들 이신원 군도 기꺼이 즐기며 식사를 함께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고 먹여주는 이 가족! 가족들은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씨로 서로를 대하면 ‘웃음이 봉어뻥인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식사에 함께하지 못한 반려견 ‘이크림’까지 다섯 식구가 말이다.

- 사랑하는 내편~! 결혼생활 동안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지만 그걸 넘을 때마다 든든한 내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자기 건강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 등직한 아들과 귀요미 딸! 고딩이 된 아들, 축하하고 남은 3년 후회 없이 보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길 바래. 귀요미 딸은 중2병 잘 극복하고 언제나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어주길. 사랑해, 우리 가족!

- 아내가 남편과 가족에게



술의 장벽을 넘어야

와인컨설턴트의 와인 즐기는 방법

아직도 와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고 음식으로 대하기보다 술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와인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처럼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즐겨야 한다고 애호가는 말한다.

와인이 보인다

‘소믈리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소믈리에에 대한 대중인식이 넓어졌다. 소믈리에가 대중에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하던 한때는 ‘와인 감별사’ 쪽으로 여겼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는 ‘와인 전문가’로 빠르게 알려지고 있다. 유명 레스토랑에서는 셰프와 소믈리에가 함께 일하고 있다. 셰프가 요리의 품목을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요리과정을 주도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믈리에에는 와인을 선정하고 품질을 확인하며 에티켓을 갖춰 서빙하는 한편 저장과 관리를 주도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와인컨설턴트는 일종의 마스터소믈리에인데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소믈리에를 넘어 와인바, 레스토랑 등의 개업과 운영에 있어서 소믈리에 역할에 더해 와인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와인 즐기는 방법 1

와인을 알코올로만 보지 마라

와인이 알코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넓은 범주에서 와인을 음식으로 봐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마트에 가보면 와인은 주류코너의 한 쪽을 장식하고 있는데 아직 술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식탁 위에 와인 병을 올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음식을 먹는다는 인식이기에 가능하다. 물론 음식문화의 차이는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동양권에서 곡물 위주로 식사한다면 서양에서는 육식 위주기 때문에 와인 문화가 더욱 발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음식으로 보려고 해야 접근이 쉬워진다. ‘타임지’에서는 10대 건강식품을 발표하면서 적포도주를 포함시켰다. 와인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가볍게 와인을 곁들이기를 반복하면 이미 생활 속에서 와인을 즐길 준비는 다 됐다고 봐도 좋다.



와인컨설턴트란

“와인과 관계된 일을 하고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반인도 쉽게 와인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와인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와인 즐기는 방법 2

기호는 달라도 미각은 누구나 개발된다

와인에 대한 기호는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짙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 걸 좋아한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점은 다른 음식을 대할 때와 똑같은 태도에서 출발하면 좋다는 것이다. 무슨 음식이든 '맛있다'의 기준, 기본은 단맛이다. 와인은 흔히 '스윗'한 맛(단맛)과 '드라이'한 맛(떫은 맛)으로 구분하는데 와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단맛으로 시작하는 게 쉽다. 대표적으로 달콤한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다.

기호는 미각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이는 음식을 먹었던 맛의 기억에서 비롯되는데 김치를 예로 들면 알맞다. 어릴 때 못 먹던 김치를 커서 먹는 경우가 그렇다. 입맛도 경험을 반복하면서 늘고 감칠맛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와인을 즐기는 미각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각 와인이 어떤 맛을 내는지 지식을 쌓는 방법과 자주 경험해보는 방법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에 대해 아무리 잘 알아도 갖지 못한 다이아몬드는 소용이 없다. 다이아몬드도 모르고 보면 돌덩이일 뿐이지만 갖고 대하다 보면 가치와 장점을 알아가게 된다.

어느 정도 와인에 대해서 알았을 즈음엔 와인 관련 도서를 열 번 읽어봐야 한 번 마신 것만 못하다. 직접 즐기며 알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한편 일정 이상을 경험하고 나서는 와인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좋다.



와인 즐기는 방법 3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일 가능성은 높지만 무턱대고 비싼 와인만 고를 필요는 없다. 20만~30만 원대만 해도 충분히 좋은 와인을 마실 수 있다.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보다 높은 가격대의 와인은 양상이 다르다. 그 이상의 와인을 마시는 건 자기만족인데 50년 된 와인, 한정생산 와인 등으로 가치를 사서 마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비싼 가격의 와인을 즐겨도 되지만 초심자가 그럴 필요는 없다.



추천 와인

“올해는 호주FTA로 인해 호주와인을 즐겨보기를 권합니다. 호주는 비옥한 땅이죠. 비교적 저렴하게 수입되는 품질 좋은 와인을 접해 볼 기회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음식에 잘 맞는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미술관

사우들의 여가에 풍성함을 더할
전국의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근현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서양화가로 이중섭과 박수근, 그리고 장욱진을 꼽을 수 있다. 장욱진은 특히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창작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작년 4월 경기도 양주에 장욱진을 기념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개관했다. 화가 장욱진의 정신을 잇는 경기 북부 유일의 전문미술관을 추구하기에 이곳은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된다.

시대의 거장, 양주의 품으로 돌아오다

화가 장욱진에게 있어 집은 특별한 공간이다. 밥을 먹고 햇볕을 쬐며 지친 몸을 누여 쉬는 생활공간이자 모든 작품을 만든 창작공간이기 때문이다. 장욱진은 평생 동안 여러 곳에 이사하며 살았는데 본격적인 작품 창작활동을 하면서 가장 오래 지냈던 곳이 경기도 덕소로 1963년에서 1974년까지 햇수로 12년을 살았다. 덕소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에 속하지만 당시만 해도 경기도 양주에 속했다. 이후 작고할 때까지의 약 16년 동안 여러 곳에 살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양주에서 보냈다는 말이다. 그는 번잡해진 서울을 벗어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집에서 실험하고 좌절하며 그의 작품세계를 새로운 단계로 승화시켰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 지역은 과거 문화예술촌으로 유명했는데 1999년 대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차츰 문화예술의 색이 바라기 시작했다. 급기야 수많은 숙박업소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문화향도 씻겨나갔다. 양주시는 다시 문화예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계속했다. 가나아뜰리에와 아트파크, 조각공원 등이 설치되자 조금씩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하이라이트로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양주와 오래 인연을 맺었던 시대의 거장이 양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욱진의 정신에

미술관 역할을 더하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장욱진의 정신이 고스란히 배인 공간

장욱진 작품의 특징은 시대상을 표현하기보다 자전적인 세계에 기반 한 이상적인 세계를 담는 점이다. 새로운 사조를 빨리 받아들여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던 시대에 스스로의 세계에 더욱 깊이 침잠한 그의 작품은 볼수록 깊이가 느껴진다. 아이와 같은 감성으로 동화적인 세계를 그렸는데 주로 집, 나무, 아이, 새를 그렸다.

장욱진이 추구한 이상세계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군더더기를 제거한 '간단함(Simple)'이다. 서울이 복잡해지자 덕소로 떠났고 덕소가 개발되자 다시 한적한 곳을 찾아갔던 삶의 태도 역시 그런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건축 설계부터 전시기획까지 장욱진의 정신을 담았다. 설계는 벨기에 출신의 건축가 로랑 페레라가 담당했는데 장욱진의 호랑이 그림 <호작도>와 '집'의 개념을 모티브로 자연주의를 표방했다. 중정과 각각의 방들로 구성된 건축물은 2014년에 '김수근 건축상'을 수상했고, 영국 BBC의 '2014 위대한 8대 신설 미술관'에 선정됐다. 무엇보다도 산림과 어우러지는 위치에 대해 장욱진의 가족이 "故 장욱진 선생의 뜻과 맞다"고 한 점이 더욱 큰 자랑거리다.





양주시립미술관은?

주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211 (석현리 385-1)

대표번호 031)8082-4245

관람안내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전일 포함 2일 휴관

관람료 어른 2천 원, 어린이 500원 (지역민/청소년/군인 50% 할인)

백곤 수석학예연구사가 전하는 깨알정보

- 건물을 곳곳마다 살펴보세요. 모든 공간이 각각 방의 구조여서 돌아다니는 재미가 큼니다.
- 아카이브 공간에 들어가 보세요. 장욱진의 집 사진을 바탕으로 아카이브 공간을 꾸몄습니다.
- 벽화를 꼭 보세요. 과거 덕소 집에 남긴 벽화작품 두 점이 전시관의 백미입니다.
- 가족 단위로 방문하세요. 현재 조각공원과 통합해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는 천문대가 있어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인근에 캠핑장이 개설될 예정이니 가족이 즐기기 좋습니다.
- 관람객 참여공간을 즐기세요. 자신의 그림실력을 뽐내거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과 장욱진미술관으로서의 역할 모두를 지향한다. 1년에 네 차례 전시하는데, 장욱진 관련 전시가 두 번, 장욱진의 정신을 잇는 지금 시대 화가의 작품 전시가 두 번이다. 장욱진을 역사 속 유물처럼 전시하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한편 미술관은 시민을 위한 공간 역할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양주 지역 커뮤니티 아트 중심으로서 생활문화센터로 기능하고자 각종 회화·사진 동호회 조직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한편, 지역 차원 노력의 일환으로 버려진 숙박업소를 개조해 회화·사진·복합장르 작가의 레지던스로 활용하고 여기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며 그 역할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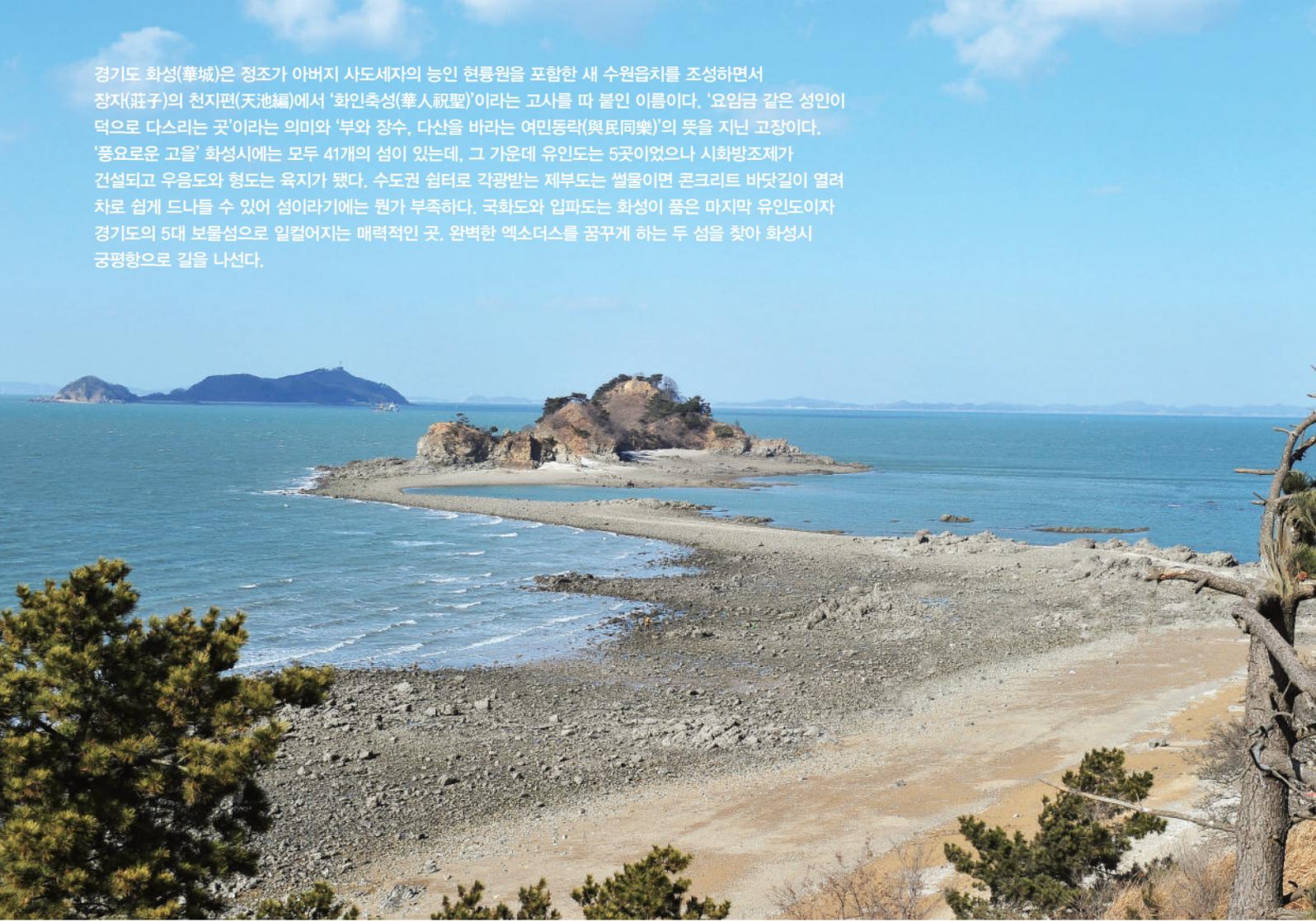


섬을 걷다

아름다운 섬이 품은 길을
찾아 갑니다

글·사진 전부순

경기도 화성(華城)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을 포함한 새 수원읍치를 조성하면서 장자(莊子)의 천지편(天地編)에서 '화인축성(華人祝聖)'이라는 고사를 따 붙인 이름이다. '요임금 같은 성인이 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와 '부와 장수, 다산을 바라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뜻을 지닌 고장이다. '풍요로운 고을' 화성시에는 모두 41개의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인도는 5곳이었으나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고 우음도와 형도는 육지가 됐다. 수도권 침터로 각광받는 제부도는 썰물이면 콘크리트 바닷길이 열려 차로 쉽게 드나들 수 있어 섬이라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국화도와 입파도는 화성이 품은 마지막 유인도이자 경기도의 5대 보물섬으로 일컬어지는 매력적인 곳. 완벽한 엑스더스를 꿈꾸게 하는 두 섬을 찾아 화성시 궁평항으로 길을 나선다.



화성이 품은 **마지막 유인도의 매력에 빠지다**

화성 국화도-입파도

입파도 홍암의 물이 빠져나간 갯벌을 관광객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1

국화도(菊花島)

TIP.



화성 공평항과 당진 장고항에서 매일 정기여객선 운항 | 화성 공평항 운항여부 확인 : 서해도선 010-8274-4050

오전 9시 서해도선에 몸을 싣는다. 평일이기 때문인가. 길손을 포함해 손님은 단 두 명. 기관장은 “동절기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간혹 배가 뜨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한 분이라도 오시면 배는 무조건 뜬다”면서 “다만 물때에 따라 출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운항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귀띔한다. 바람 때문에 파도가 제법 세차게 일었지만, 기관장의 잔잔한 설명 덕에 동요되지 않았다. 조개를 캐러간다는 손님 한 분을 입파도에 내려놓고 키를 돌려 10여 분 뒤 국화도에 닿았다.

국화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화성시 도서편에는 우정을 구화도(九化島)가 원래 지명이라 했다. 조선시대에 유배지가 되면서 만화리에 속해있어 만화도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국화리가 되면서 섬 이름도 바뀌었다. 서해바다에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섬’이란 뜻과 이곳에서 많이 나오는 조개의 조가비가 ‘국화꽃’을 닮아 예전부터 국화도로 불렸다고도 전한다. 현지 주민들은 꽃이 늦게 피고 늦게 지는 까닭에 늦을 ‘만(晩)자’를 써서 만화도로 불렸다고 한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국내여행 100선’에 뽑힌 국화도는 행정구역으로 화성시다. 그러나 거리는 충남 당진에서 훨씬 가깝다. 공평항에서 뱃길로 45분 남짓이고 당진 장고항에서는 15분 거리라 41가구 50여 명의 섬 주민은 대부분 당진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

조선말 경기감사와 충청감사는 어업권 확보를 위해 서로 국화도를 자기 관할임을 주장했다.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표주박을 띄워서 달는 곳을 관할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결과는 경기감사가 이겼다. 떠가던 표주박이 우정을 매항리에 닿아 이때부터 국화도는 매항리 부속도서가 됐다.

논란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는데, 국화도를 기준으로 지자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아산만 대부분이 경기도 관할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화도가 ‘경기도의 독도’로 불릴 정도로 큰 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관할권 분쟁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선착장은 조용한 반면 삭풍처럼 을씨년스럽다. 안내도를 보며 섬 일정을 머릿속에 그린 뒤 먼저 국화도 해맞이전망대로 발길을 잡는다. 이곳에서는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동해의 일출과 달리 오렌지 빛을 발산하는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한다. 3층 팔각정 전망대에 서니 북쪽으로 멀리 풍도와 육도가 아슬라하고, 그 앞에 등대를 지고 앉은 입파도가 떠있다. 남쪽으로는 멀리 제부도와 화성 방조제가 조망된다.



2



1. 바닷길이 열린 토끼섬 전경. 국화도의 도지섬과 토끼섬은 썰물 때면 조개와 고동을 쉽게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양파자루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다.
2. 국화도항으로 멀리 도지섬이 연결되어 있다. 국화도는 화성 공평항과 당진 장고항에서 정기여객선이 운항되어 접근이 쉽다.



국화도는 섬이 작아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더 청정하다. 면적은 0.39km²,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 반이면 섬 전체를 돌아본다. 주민들은 농사지을 땅이 아주 적고, 고기잡이도 마땅치 않아 소규모 양식장 운영과 낚시꾼·관광객들에 기대어 생계를 잇는다.

작은 언덕을 넘어가면 천혜의 해수욕장이 활처럼 길게 펼쳐진다. 경사가 완만하고 조개껍질과 모래, 잔 자갈이 적당히 섞여 있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피서에 안성맞춤이다. 지난 해 11월 12일에는 이곳 바다에 어린 해삼이 정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해삼육성 실험차 전용 어초 732개를 조성하고 어린 해삼 6천여 마리를 넣었는데, 한 달 뒤 이들 해삼이 모두 정착했음을 확인한 것. 해삼 인공증식 성공으로 경기도 어민들의 소득에 보람이 갖들하기를 기대하면서 갯벌체험장을 지나 가장 멋진 경관을 보인다는 매박섬, 일명 토끼섬에 다가간다.

국화도는 썰물 때면 바닷길이 열려 이어지는 두 개의 섬, 매박섬과 도지섬을 거느린다. 아침 썰물 때라 바람과 어우러진 바다가 갈라지며 바닷길이 서서히 속살을 드러낸다. 비로소 바닷길이 열린 것이다. 굴 껍데기가 떠밀려 와 쌓인 새하얀 해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쟁그럽게 잘그락대는 소리가 정겹다.

조개와 고동잡이 체험을 하고, 야간에는 횃불 들고 낙지도 잡는다는 토끼섬을 돌아 나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산자락을 오르면 국화도가 자랑하는 돌레길과 연결된다. 바닷물을 끌어들이 담수로 만드는 시설을 지나 가장 높은 능선(해발 63m)에 서자 북쪽으로 입파도가 뻗어 보이 운치를 더한다. 작은 정자를 만나 잠시 숨을 돌리고, 또 다른 바닷길이 열린다는 도지섬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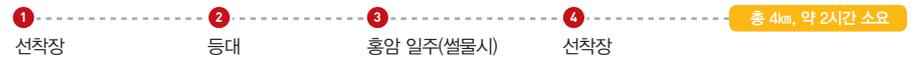
굴 껍데기가 쌓여 작은 구릉을 이룬 도지섬은 울창한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정상에 올랐으나 사방이 절벽 뿐 길이 없다. 발길을 되돌려 선착장으로 향한다. 썰물로 드러난 시멘트길이 마을과 직선으로 연결된다. 별이 좋아선지 어부의 그물 손질하는 손길이 무척 재다. 평일이고 비수기라서 조용한 마을은 한층 평화롭다. 예전의 분교장은 마을교육관으로 변신했고, 건물은 모두 펜션화하여 해마다 2~3만 명이 찾는 관광지임을 실감한다.



1

입파도(立波島)

TIP.



서해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넓은 바다 위에 탁 트인 하늘이 펼쳐있어서! 게다가 뭉게구름까지 잠겨있다면 금상첨화일 게다. '일어서서 파도를 맞는다'는 입파도(立波島)로 가기 위해 국화도 선착장에서 또 서해도선에 몸을 싣는다. 입파도는 멀리서 보면 부처가 누운 모습이다. 0.44km² 면적에 남북으로 길쭉하고 섬 정상에 등대가 서있어 입파도임을 알려준다. 대부분 해발 50m 이하의 구릉지대로 아기자기한 선형을 이룬다. 완만한 능선은 해안의 모래와 몽돌밭으로 이어가고 곳곳에 솟아난 해안 절벽이 승경이다. 선착장에 내리니 멀리 바다물이 빠진 펠에서 양동이를 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조개 캐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빠지면 육지에서 개조개를 캐러 많이들 들어옵니다." 스스로를 입파도 도지사라고 소개한 노인의 설명이다. 개고생하면서 캐는 조개여서 '개조개'라고 부르는데, 실물이 보통 어른 주먹만큼 크고 묵직하게 보인다.

등대로 가는 길은 자동차가 다닐 만큼 넓고 깨끗하다. 정상으로 연결한 가파른 길은 헬기장을 지나야 입파도 등대(해발 121m)에 닿는다. 2007년 12월 준공한 무인등대는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어 시설물 보수나 부품교체 때만 관리원이 오가는 듯했다. 풍광이 아름답고 조용한 공간에서 길손을 맞이하는 것은 바람결에 규칙적으로 소리 내며 돌아가는 작은 풍력발전기뿐이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비상하는 평택 당진항만 입구에 위치한 입파도등대는 LNG선·컨테이너선·카페리선·국제여객선 등 월 평균 2천여 척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돕고 있다. 등대 뒤편 쉼터 끝으로 호젓한 산길이 북쪽 능선을 이어간다. 다소 험한 오솔길, 끝내 급경사 절벽과 맞닿는다. 다행히 길게 늘어진 세 가닥 밧줄이 있는데 이를 잡고 하강하는 맛 또한 일품이다. 붉은색 기암괴석 입파홍암(立波紅岩)이 거기에 있다. 암벽과 암벽 사이에 자생하는 해송은 바닷새와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린듯해 예부터 화성팔경의 하나로 쳐준 명승이다.

2



3



4

섬과 홍암은 굴 껍데기가 쌓인 톱으로 연결되어 있다. 썰물로 드러난 서쪽 해안은 온통 굴 천지다. 바위에 붙은 굴을 채취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홍암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나온다. 동쪽 해안은 서쪽과 달리 바위투성이다. 사람들이 긴 플라스틱 봉을 들고 작은 돌들을 수직으로 톱툰 치며 다닌다. 이때 땅에서 물기가 솟아나면 바로 갈고리로 파내어 조개를 찾는다. 선착장에서 들었던 개조개는 이런 방법으로 캐고 있었다.

다시 선착장으로 향한다. '배에서 내렸을 때보다 물이 많이 들어왔다' 생각한 찰나 멀리 떠있는 해양경찰선에서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으니 물로 신속하게 이동하라"는 경고성 안내방송이 울린다.

입파도는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인데 1980년대까지는 무인도였다. 언제부턴가 한두 명씩 들어와 현재 11가구 18명이 사는 유인도가 됐다. 궁평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만난 서해도선 기관장은 "입파도는 모래와 자갈해안, 해안사구가 뛰어나고 썰물 때는 물이 많이 빠져서 굴과 조개를 쉽게 잡을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아이들의 체험학습으로 인기가 좋아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곳"이라는 자랑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에서 정기선이 운항한다.

1. 입파도 등대는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비상하는 평택 당진항만 입구에 서서 LNG 선·컨테이너선·카페리선·국제여객선 등 각종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돕고 있다.
2. 아는 사람만 방문하는 곳이 입파도다. 낚시는 물론 썰물 때를 이용해 이곳의 명물 개조개를 캐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한다.
3. 국화도항과 장고항을 이용하는 소형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서녀암 등대를 뒤로 하고 주민들이 바다로 나가고 있다.
4. 개조개를 캐기 위해 플라스틱 봉을 들고 해안을 누비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100세 습관

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도움말 조하영(서울성모병원)



오래 앉는 비결은 꼭꼭한 자세

앉는 자세 습관

누구나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바르게 앉는 자세가 오래 일하기 **편한** 자세라는 건 잘 모른다. 흔히 앉는 자세는 다양한 건강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바르게 앉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앉은 자세로 맞닥뜨리는 질환들

바르지 않은 자세의 대표적인 경우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다. 불안정한 골반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인데, 척추가 틀어질 위험이 있다. 골반 근육이 지속적으로 당겨져 골반이 휘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척추도 함께 휘어 허리디스크 위험이 커진다.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습관적인 다리꼬기다. 여성의 경우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 내 자궁이나 난소에도 나쁜 영향을 줘 생리통, 생리불순을 유발한다. 다리 꼬는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 어렵다면 책상 밑에 낮은 받침대를 두어 발을 교대로 올려가며 천천히 바로 앉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편한 자세를 찾다 보면 의자에 눕다시피 기대는 경우가 생긴다. 누운 자세는 허리가 편해지는 대신 목에는 상당한 부담을 준다. 뿐만 아니라 점심 후 누운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복부에 적절한 긴장감이 들지 않아 복부비만의 우려가 있다.

엉덩이만 의자 끝에 걸치고 앉는 경우 머리가 몸통의 앞쪽에 오게 된다. 모니터에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머리가 몸통의 앞쪽에 오면 목뼈가 정상적인 C자 모양에서 일자나 거꾸로 휨 C자 모양으로 휨다. 그러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목 뒤쪽 근육이 긴장해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거북목이 될 수 있다. 심하면 목에 있는 신경까지 눌러 두통과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손목에도 무리가 가서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길 위험도 크다.

바르게 앉는 자세로 피로를 풀자

바른 자세든 바른 자세가 아니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허리가 지친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기보다 자세를 바꾼다. 눕거나 다리를 꼬거나 의자 끄트머리에 걸터앉는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과도하게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도

팔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치세요



무릎 90도로 바르게 세우세요



올바른 앉은 자세



있다. 그런데 무심코 바꾼 자세가 건강을 망치게 만든다. 직장인 대부분이 허리, 다리, 머리 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앉는 자세가 좋지 않아 나온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일자목 증후군 등 척추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오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는 바른 자세다. 엉덩이와 허리는 의자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무릎은 90도로 바르게 세운다. 팔은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치고 턱은 아래로 가볍게 당긴다. 턱을 가볍게 당기기 위해서는 모니터와의 거리를 50cm 이상 유지하고 눈높이를 조절해 10~20도 정도 아래로 보는 정도가 적당하다.

바른 자세도 오래 앉으면 불편한데 이때 자세를 바꾸기보다 잠시 일어나 쉬는 게 좋다. 앉는 자세에는 '505법칙'이 있다. 고등학생이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쉬듯 주기적으로 쉬어야 한다. 직장인은 50분을 일하면 5분을 쉬거나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 그 뒤 다시 바른 자세로 앉으면 바른 자세가 얼마나 편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자세인지 알 수 있다.

턱 아래로 가볍게 당기세요



허리, 엉덩이 등받이에 바짝 붙이세요



나의 롤모델

사우의 롤모델로부터
성공 열쇠를 찾아봅니다

글 김효동(Aromatics생산2과)

조선의 황금시대를 이끈 위대한 왕

Aromatics생산2과
김효동 사우의 롤모델
'세종대왕'

왕이라는 자리가 나라의
모든 영예를 즐기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세종대왕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다.
임금이 태평하지
않음으로써 태평성대를
만들려 한 성군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된다.



◆ 내 인생의 롤모델 ◆

세종대왕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척이나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고, 위인전 또는 드라마로도 그분의 삶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어릴 적 위인전을 통해 처음 세종대왕을 접했다. 지금 우리가 한민족 고유의 말글인 한글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훈민정음의 뜻에서 얼마나 백성을 아낀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문화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외교와 정치에도 큰 업적이 많다. 세종대왕께서는 4군과 5진을 설치하여 우리 땅의 경계와 고유영토를 분명히 밝혔다.

인재를 등용할 때에는 조선 특유의 신분제 아래서도 신분을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중용했다. 장영실 같은 과학자를 등용해 그의 업적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의 치세는 길어야
30년이나 너의 기술은
백년 아니 오백년 아니
어쩌면 더 길게 살아남아
이 나라를 지탱할 힘이
되어줄 거다
-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중
세종대왕의 대사



역사의 지침이 되어준 희대의 성군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임금으로 본래 이름은 '이도'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건국 초기의 강압적 왕권과 훈신세력을 제어하는 한편 온유한 유교정치를 펴 성군으로 칭송받는다.

대표적인 업적은 한글창제다. 세종 25년(1443) 정인지·신숙주·박팽년·성삼문 등 집현전 젊은 학자들의 협력을 받아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고, 3년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1446년에 반포했다. 입의 구조와 발성 원리를 연구하여 자음 17개와 모음 11개를 교합하여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조선의 백성은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쉽게 뜻을 전하고 기록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소유하게 되었다.

발명품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창의적인 것들이 많았다. 세종 15년(1433) 천체측각기인 혼천의와 간의,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고, 세종 16년(1434)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발명했다. 세종 23년(1441)에는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와 하천수를 재는 수표를 발명하기도 했다. 특히 측우기는 이탈리아 베네데토 카스텔리(Benedeto Castelli)의 측우기(1639)보다 거의 200년이나 앞서는 세계 최초의 것이다.

위정자가 할 수 있는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많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세종 2년(1420) 집현전을 확충, 궁중에 설치하여 학자를 키웠다. 학문을 숭상하고 정치와 문물제도를 정리하여 행정체제를 확립했다.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반포케 해 농업 발전에 기여했고 의료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향약채취월령〉,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등의 의서를 편찬하였으며,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게 하기 위해 법제적으로 삼심제도인 삼복법을 실시했다.

힘없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죄를 지은 자들과 노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15세 미만인 어린이와 70세가 넘는 늙은이는 살인죄나 강도죄가 아니면 가두지 못하게 하고,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인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더라도 가두지 못하게 하였으며, 천민인 노비를 하늘이 낸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려사〉 등을 편찬하고, 〈호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지어 좋은 예절과 풍습을 권했다.

세종대왕의 업적 중에 학문과 사회와 관계된 내용이 많아 문약한 임금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국가 영토와 외교에서도 뛰어난 업적이 많다. 세종 원년(1419)에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토벌하게 해 경상도에 예속시켰고, 세종 15년(1433)에 사군을 설치하고, 세종 16년(1434)에는 김중서로 하여금 동북 변경 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해 육진을 설치함으로써 동북과 서북쪽의 땅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확장, 우리 강토의 방비를 튼튼히 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대왕'이라는 칭호조차도 무색할 정도의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조선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다.

열린 서재

자료실에서 사우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인기 도서를 소개합니다

도움말 정재연(반디앤루니스 북메니저) 자료제공 박선영(총무팀)

삶을 성찰하는 미스터리 방정식

〈한여름의 방정식〉 히가시노 게이고

우리나라 독자에게도 유명한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을 쓴 일본 최고의 인기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또 하나의 걸작 미스테리를 탄생시켰다. 〈용의자 X의 헌신〉, 〈성녀의 구제〉로 이어지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3번째 작품 〈한여름의 방정식〉으로, 그의 작가생활 25주년 기념작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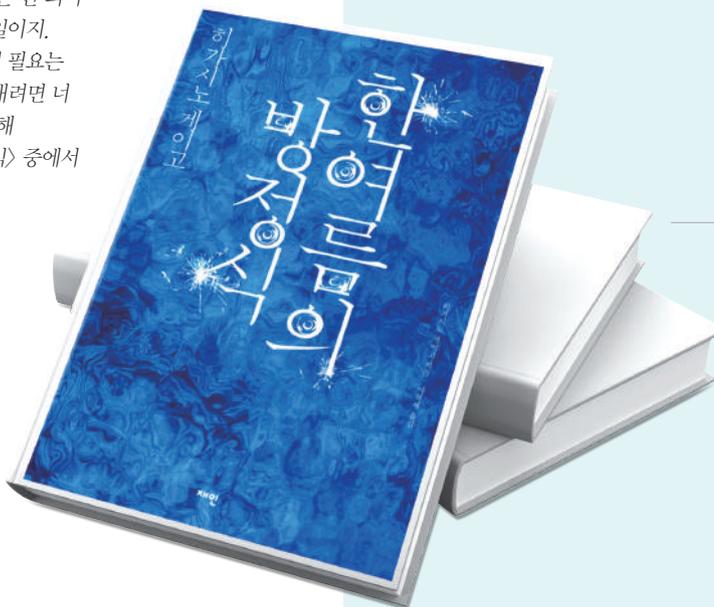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특유의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냉철한 추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숨 가쁘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휴머니즘이 물씬 풍긴다. 작가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다른 두 작품과 분위기를 다르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썼다면서, 조금 명랑하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여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일명 '탐정 갈릴레오')와 소년 교헤이가 우정과 교감을 엮어가는 가운데 도교를 오가며 숨 막히는 사건 전개와 추리가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 이 소설은 마치 눈에 잡힐 듯 디테일이 살아 있는 영화 같은 묘사와 살아 움직이는 개성 있는 캐릭터로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묘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마지막 몇 장을 남겨 두었을 때까지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이 이어지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는다. '반전'과 '예상치 못한 결말'조차도 이제는 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스터리 거장의 관록은 녹록치 않다. 2013년 일본 개봉작 중 만화영화를 제외한 실사 영화 부분의 입장 수입 1위를 차지하고 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배우 후쿠야마 마사하루에게 요코하마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 주기도 했다.



해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 인생도 그래. 금세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거야. 그때마다 고민한다는 건 의미 있고 가치도 있는 일이지. 하지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어. 해답을 찾아내려면 너 자신이 성숙해져야해 - 〈한여름의 방정식〉 중에서



〈한여름의 방정식〉 이렇게 읽었습니다

머리 식히기 좋은 도서로 강력 추천한다. 한여름의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겨울의 추위도 견딜 만큼의 매력적인 장르이기 때문이다. 제목에 이끌려 접하게 되었는데, 깊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의 뜻을 생각하면서 책을 펼쳤다. 소설을 읽는 내내 정말 있음직한 일처럼 느끼게 만든 작가의 솜씨에 감탄했다. 배려와 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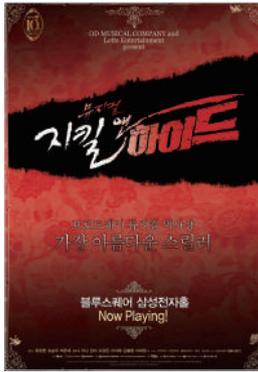
글 이소영(광주지사)

※ 본 도서는 지난 2월 1~28일 본사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문화 콘텐츠

〈한여름의 방정식〉과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뮤지컬 }



〈지킬 앤 하이드〉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로버트 스티븐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지킬과 그의 신념을 저지한 위선자들을 처단하는 하이드를 통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얘기한다. 뮤지컬 장르에선 보기 드문 스릴러 장르로 한 사람 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인격을 가진 지킬과 하이드란 캐릭터와 그를 사랑하는 엠마와 루시를 등장시켜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려낸다.

국내 뮤지컬 마니아들은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를 포함한 빼어난 음악 때문에 더욱 주목하는 작품이다. 2004년 초연 당시 전회 매진, 전회 기립박수라는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기며 뮤지컬계의 한 획을 그었다.

일시 | ~2015년 4월 5일까지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 영화 }



〈케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과 진실에 대해

자유로운 삶을 즐기던 여행가 에바에게 아들 케빈이 생기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에바의 삶은 케빈의 이유 모를 반항으로 점점 힘들어져만 간다. 에바는 가족 중 유독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지 않는 케빈과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지만 그럴수록 케빈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에바에게 고통을 준다. 세월이 흘러 청소년이 된 케빈은 에바가 평생 혼자 짊어져야 할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케빈에 대하여〉는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다. 원제는 'We Need Talk About Kevin'. 제목처럼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채 이해할 수 없는 케빈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된다.

감독 | 린 램지
개봉년도 | 2011년

{ 전시 }



〈블라디미르 쿠쉬전〉

사실과 은유의 경계에 선 초현실주의 작품

세계적인 초현실주의 작가 블라디미르 쿠쉬(Vladimir Kush)의 작품을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쿠쉬는 실바도르 달리의 계보를 잇는 러시아 태생의 초현실주의 작가로 러시아, 홍콩, 프랑스, 미국 등 매년 관객을 환상의 세계로 매료시켜온 작가다.

이번 첫 한국특별전에는 총 170여 점으로 유화 5점, 드로잉 26점, 판화 5점, 에디션 98점, 조각 11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가의 유틸리티 있는 상상력의 탄생배경을 엿볼 수 있는 작가의 방이 드로잉 작품들과 함께 재현돼 초현실주의 작가의 섬세한 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사실주의화법(Real)+은유화법(Metaphor)'의 합성어로 'Metaphoriaci Realism'이란 쿠쉬만의 화풍으로 다양한 해석과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다.

일정 | ~2015년 4월 5일까지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독자 광장

S-OIL MAGAZINE

Vol.400

2015 March

Quiz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홍성훈 에너지관리팀

정주영 안전과

조연환 전주지사

최덕규 (삼일주유소, 울산시 남구 대학로)

USB저장장치

이종필 촉매연구팀

김기현 석유화학운영팀

유영근 (前제품운영1과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임채갑 (대영LPG충전소, 강원도 동해시 발한로)

새로운 도약을 향한

성장의 기록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
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
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
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
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이달의 엽서



<주요 경영활동·CEO 동정> 2015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신입사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남다른 기업이라 느껴집니다. 이런 사내분위기가 막강기업을 만드는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_ 흥형석(고객, 대전시 서구 문정로)



<햇살나눔> 계전부 지역아동센터 봉사
 저 역시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어린이 후원원을 하고 있기에 아이들을 위한 봉사 후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_ 박주원(대성주유소,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가족 이야기> 탈황2과 서경주 사우 가족
 선배님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네요.
 _ 정영길(탈황2과)



<애호가가의 수첩> 영화 보는 법
 영화평론가가 소개한 영화 보는 법을 따라해 본다면 더욱 즐거운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_ 이영무(고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섬을 걷다> 통영 비진도 산호길
 언젠가 가보고 싶다 생각하던 섬에 대해 정말 자세히 소개돼 있어 좋습니다.
 _ 김영희(前분해부, 울산시 남구 아음로)



<나의 롤모델> 테리 폭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모습을 보여준 롤모델 인물의 사연이 감동적이었습니다.
 _ 황미린(고객, 울산시 남구 신선로)

<유채 핀 언덕>



남쪽으로부터 오는 봄이 3월의 문을 활짝 연다.
찬란한 자연을 물감으로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지를 깨우는 청정한 노란 유채꽃과 연둣빛 잎으로
싱그러운 봄소식을 알린다.